

신민중의 시대로 평화의 대도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06년 1월 26일

글로벌한 위협을 타고 넘어 '인간주의'가 빛나는 지구문명의 지평을!

'SGI의 날'을 기념해 평화와 공생의 지구사회를 위한 방도를 전망하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라는 역사의 마디를 새긴 지난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일순간 위기에 빠뜨리는 위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것은 잇따른 자연재해입니다.

2004년 12월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안의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난해 7월에는 인도에서 홍수 피해가 확대되고, 8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덮쳐 심대(甚大)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많은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가뭄으로 식량위기가 계속된 데다, 10월에는 파키스탄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7만3천 명이 희생되고 약 3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침수피해로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많은 시민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진 사실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은 선진국이라도 큰 과제라는 점을 새삼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더불어 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은 각지에서 많은 시민이 휘말린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런던에서 지하철과 버스 승객들이 희생되는 연쇄폭탄테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G8서밋(주요국 정상회담) 개최로 엄중경계 태세를 취한 와중에 발생한 테러여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발리 섬, 이라크 등에서 일반시민이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그러한 무차별적인 폭력의 경향은 더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종과 민족 등의 차이에 대한 불관용(不寬容)이 야기하는 분쟁이나 범죄, 또 이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의 알력(軋轢)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 아프리카의 수단 서부 다르푸르지방에서 아랍계(系) 민병조직이 아프리카계 주민을 습격해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약 1백90만 명의 국내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연합(유엔) 조사단이 “최악의 인도적(人道的) 위기”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990년대 무렵부터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된 ‘증오범죄(Hate crime)’는 2001년 9월의 ‘동시다발테러 사건’ 이후에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도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민 문제에 관련한 경우로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 폭동이 확대되고 야간외출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 밖에 급속하게 진전되는 글로벌화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는 문제로서 감염증 등의 역병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아프리카 등지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 지금까지 사망자는 2천 5백만 명 이상이고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도 1천 5백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HIV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또 ‘신형(新型) 인플루엔자’ 유행도 우려되며,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면 예전의 스페인 독감에 필적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유로운 개인’과 ‘나형(裸形)의 개인’

이상 주요한 몇 가지를 열거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두드러진 글로벌 이슈(문제점)로서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지구온난화나 테러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빈곤이 보여 주듯, 글로벌리제이션의 ‘플러스’ 측면으로 여겨지는 경제·금융의 세계화와 IT(정보기술)혁명으로 네트워크사회의 지구적 규모 확대 등 구조적으로 일체화되는 면도 있어 양쪽이 서로 작용해 우리에게 꿈쩍 못할 대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문명론적, 인류사적 과제라고 해도 좋고, 환경운동 표어가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동한다”라고 촉구하듯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지구문명의 장원한 도정(道程)에 자칫 의기소

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세기의 시초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현대 세계에 만연한 정처 없는 표류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의 배경에는 그러한 제반 사정이 가로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 폐색(閉塞) 상황을 정확하게 마주 대하려면 ‘대상황(大狀況)’에서 ‘소상황(小狀況)’으로 눈을 돌려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떤 큰 문제라도 신변의 생활을 실감하는 속에 위치를 부여하고 다시 포착함으로써 본질이 명확해지고 또 지속적이면서 성과가 있는 좋은 대응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해 가을 ‘세이교(聖敎)신문’이 ‘인간의 종언(終焉)’이라는 책을 소개한 서평란을 봤습니다.

부제에 “테크놀로지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있는 것처럼 생식세포 유전자 조작¹까지 착수한 최신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의 근거를 위협하고 있어 이것을 방치하면 ‘인간의 종언’마저 초래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저자는 산업혁명 이후 근대문명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들이 전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바꾸려고 배경을 처분했다는 방향이다”라고 해 그 종착점이 눈앞에 임박한 지금 “이제 우리는 – 여기가 의논의 핵심이지만 – 개인으로서도 소멸해 버릴 갈림길에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대문명은 ‘자유로운 개인’의 획득을 목표로, 인간을 온갖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부와 편익 등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은 더 많습니다. 가족, 지역·직장공동체, 종교 등의 조직, 단체, 국가, 그리고 자연 … 그것들과 유대, 굴레라는 ‘배경’을 상실한 ‘자유로운 개인’이란 어떤 실태를 갖는 것인가.

그것은 의제(擬制)일 뿐, 귀착점은 (빌 맥키벤 씨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욕망을 드러낸 ‘나형(裸形)의 개인(個人)’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기백이 날카롭고 대단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 씨는, 현대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덮치고 있다고 해서 글로벌시대를 ‘위험사회’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 그의 처지가 한편으로 ‘개인화론’으로 보완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¹ 생식세포 유전자 조작

인간 유전자 조작에는 유전병 환자의 특정부위에 치료용으로 정상유전자가 재조합된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조작’이 있다. 이 중 두 번째는 생식세포(난자와 정자)나 초기수정란에 정상유전자가 재조합된 바이러스를 주입해 탄생 전에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근년의 사건에 보이는 특징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한 근거로 하지 않으면 폐색감이 드는 ‘대상황’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의 ‘소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한탄하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종래의 상식적인 사정거리(射程距離)로는 전혀 포착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에 우연히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탄성을 지릅니다.

‘타자의 고통’을 상실한 사회

사람(人)과 사람 사이(間)에서 성립하는 것이 인간(人間)이라면 ‘나형의 개인’에게 사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타자(他者)’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자’와 사이를 뚫으로써 가능해지는 욕망의 컨트롤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 전역을 뒤흔든 고베시 ‘소년A’사건 이후 소년(소년)범죄를 분석한 야나기다 구니오 씨는 억제력 있는 독특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현시점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인 원인에 극히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흉악사건을 일으킨 대부분의 소년(소년)이 타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 완벽할 정도의 자기중심적 정신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라고.

‘소상황’에 감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원인 모를 공포증의 대부분은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오늘날의 범죄적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대조적인 한 예를 들어 보면, 도스토예프스키는 4년에 걸친 시베리아유형에서 직접 겪은 옥중체험을 쓴 우수한 기록문학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나 죄수에게 보내는 유형지 주민의 동정과 공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확실히 악(惡)이지만 설령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일지라도 인간으로서 같은 처지였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왠지 모를 동정, 공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왠지 알 것 같다’

는, 남의 일 같지 않아 측은해지는 듯한 느낌 – 그런 심정이기에 주민은 범죄를 ‘불행’이라고 부르고 죄수를 ‘불행한 인간’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벽이나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도 마음과 마음의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범죄를 ‘빙산의 일각’이라는 현대사회의 병리가 부상시킨 것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누락됐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요즘 텔레비전 화면에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로지 자기 변호에 애쓰고, 추궁을 당하면 머리를 숙이는 어른들의 추하고 흐트러진 표정에서 어떻게 공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타자의 고통’에 대한 불감증이랄까, 형용할 수 없는 참기 어려운 마음, 답답함에 시달린 사람도 많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형의 개인’에 늘 따라다니는 불안, 불안정감입니다. 거기에 ‘나형의 개인’이 인간의 정상적이고도 건전한 본연의 모습과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알 만한 최상의 증거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는 말처럼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한,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로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시대의 동향에 민감한 안테나를 늘 설치하고 있는 식자, 예를 들면 사카이야 다이치 씨가 혈연(血緣), 지연(地緣), 직연(職緣) 등 사회를 형성했던 유대가 부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속에서 ‘호연사회(好緣社會)’를 전망하는 것도, 또는 야마자키 마사카즈 씨가 글로벌 세계의 ‘불러도 대답 없는 무한공간’ 속에서 있기만 하는 개인에게 ‘사교(社交)하는 인간’으로 탈피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어떠한 ‘사이’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가학회를 관철하는 ‘확신’과 ‘핵심’

그렇지만 ‘호연사회’ ‘사교하는 인간’이라 해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입니다.

개개인에게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 자진해서 참여해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 의욕이 없으면 사회 그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을 ‘나형의 개인’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며 능동적인 ‘강인한 개인’으로 단련시키는 ‘기반’ ‘지점(支點)’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개인조차 소멸’해 버릴 가능성이 높은 막다른 곳까지 와 버린 현재,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길 외에 어둠을 뚫고 나아갈 방도는 없겠지요. 거기서 민중의 활력을 이끌어 내는 것만이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종교가 짊어질 사회적 사명

시대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는 '강인한 개인'의 기반을 만들자

30년 전 일이지만 예전에 내가 '신민중(新民衆)'의 시대를 원망(遠望)한 것도 그러한 신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불교운동, 불교를 기조로 한 인간주의 운동은 무엇보다 그런 '강인한 개인'을 단련해 완성한다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떠올린 것은 오랜 기간 일본에 체류 경험이 있는 벨기에 출신 종교학자 얀 스윙에다우(Jan Swyngedouw) 씨(난잔대학교 명예교수)가 창가학회(創價學會)에 대해서 말한 흥미로운 소감입니다.

스윙에다우 씨는 20여 년 동안 일본 사회와 종교를 견문하고, 창가학회의 특징은 종래 일본인의 신앙과 달리 신앙을 '확신'하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종교의 '핵심(core)'이 맥동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확신'과 '핵심'이 인격의 중추(中樞)를 형성하는 점에서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인재 배출을 발견하시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和)'의 나라로 불리는데 그 '화'는 일본의 '화'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케다 SGI회장이나 학회 멤버가 진력하시는 '화'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평화의 '화'이며 이것은 일본 종교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는 운동입니다”라고. 우리 운동의 본질을 참으로 예리하게 보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끊임없이 권력의 하인으로 일관한 일본의 종교(특히 에도시대 불교)적인 전통을 한탄하며 “일본 전체에 이미 종교는 없다고 말해도 좋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스윙에다우 씨는 니치렌 불법(日蓮佛法)을 기반으로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습에 그런 일본의 전통을 뚫고 나갈 가능성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시대는 급속하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짚어지기에 적합한 '강인한 개인'을 단련하고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종교의 제일의적(第一義的) 역할입니다.

종교전쟁과 대치한 모럴리스트

그런데 나는 최근 몇 년간 불교를 기조로 한 인간주의 구조를, 각도를 달리해 몇 차례 고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한 논조에 입각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 한 사람의 인물 즉, 불교적 전통과 아무 인연이 없으면서도 불교, 특히 법화경에서 니치렌 불법에 이르는 대승불교의 인간주의 계보에 놀랄 만큼 가까운 사색과 행동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16세기 프랑스 모럴리스트의 원류인 미셀 에캄 드 몽테뉴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주요 저서인 《수상록》의 첫머리에 “참으로 인간이란 놀랄 정도로 헛되고 변하기 쉬운, 일정하지 않은 존재다. 인간에 대해 늘 고른 판단을 세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상의 상대성과 가변성을 기조로 하는 불교의 무상관(無常觀)과 공명하는 듯한 감개로 시작하며 여기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 동양적인 톤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서양 여러 나라의 불교 이해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무상신속(無常迅速)의 세상을 혐오해 출가나 산 속에 틀어박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좋다고 인정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성관(서유럽에서 군주나 귀족이 살던 별장)에서 집필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성에 맞다고 내비치기는 했지만 고등법원 법관, 보르도시(市) 시장, 국왕 측근 등 공무에 힘쓰며 때로는 곤잘 서민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등 모럴리스트답게 세상의 여러 번잡한 일 대하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 59년 생애의 대부분이 유럽 역사상 가장 처참하기 이를 데 없던 종교전쟁²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상록》의 문구 하나하나의 글자 그대로 역주1)‘여연화재수’의 광채와 중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소상황’을 통해서 ‘대상황’에 접근한다는 간요를 언급했는데 실로 몽테뉴가 영위한 삶이 그러하며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주의, 세계시민의 에토스(도덕적 기풍)를 생각할 때 그만한 책임자는 없을 것입니다.

신변의 ‘일상’을 사상의 출발점으로

《수상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빠져 나가고 인간에게서 달아나길 원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수작이다. 그들은 천사로 변하려 하나 짐승으로 된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 초월적 사상이라는 것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높은 곳 같아서 나는 두렵기만 하다.”

‘자신’이나 ‘인간’이라는 신변의 ‘소상황’인 일상성을 피해서는 안 된다, 피하면 언젠가 다시 직면하는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전(佛典)에 “한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일체중생 평등함”(어서 564쪽)이라고 있는데 몽테뉴의 보편적 정신도 ‘자신’이나 ‘인간’이라는 살아 있는 ‘한 사람’을 철저히 응시하고 중시해서 나온 전망입니다.

² 종교전쟁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기독교의 종교개혁으로 생긴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의 대립이 원인으로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전란의 총칭이다. 프랑스 위그노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독일 30년전쟁 등이 포함된다.

몽테뉴의 보편적인 견해는 당시 맹위를 떨친 구교(가톨릭)와 신교(프로테스탄트)의 차이와 대립을 비롯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차별을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초월했습니다.

“우리의 풍습을 이슬람교도나 이교도의 것과 비교해 보라. 늘 그들만 못할 것이다.”

“기독교도의 적대심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우리 종교는 악덕을 뿌리뽑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도리어 악덕을 옹호하고 가꾸며 유발시키고 있다.”

그는 일단 가톨릭교도를 자인하지만 종파성과는 아무 인연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온후한 그였지만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인간을 경시하는 무리에게는 누구든 개의치 않고 가차없이 단죄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말조차 없던(‘자유’나 ‘인권’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인권선언’은 2백 년 후입니다) 시대에, 《수상록》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라는 장(章)이 삽입된 사실에서도 그 용기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말한 보편주의의 확대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라는 장애물도 대수롭지 않게 뛰어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의심조차 하지 않던 ‘문명’ ‘야만’이라는 식민지주의 이데올로기 등은 그에게 쓸데없는 허황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원주민의 인상을 적은 내용에서는 대담하고도 공평하며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성의 법칙에 비추어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와 비교해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모든 야만성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몽테뉴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끝없이 주술로 속박하는 인종, 민족 간의 차별이나 편견과는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시민’ 소크라테스를 자연히 찬양(讚仰)하게 됩니다.

“누가 소크라테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그는 ‘아테네에서’라고 대답하지 않고 ‘세계에서’라고 대답했다. 남달리 상상력이 충만하고 드넓던 그가 세계를 자기 도시처럼 생각하고, 인류 전체에게 자기 지식과 교제(交際)와 애정을 베풀었다.”

또 몽테뉴의 보편적 시야에서 신분의 차이, 상이 등은 안중에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 증언을 들겠습니다.

“백성과 왕, 귀족과 천민, 관리와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 곧바로 대단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말하자면 그들이 입는 바지가 다를 뿐이다.”

“내 시대에 대학 학장들보다 더 현명하고 행복한 직공들과 백성들을 아주 많이 보았는데, 나는 차라리 이들을 닮고 싶다.”

몽테뉴에게서 볼 수 있는 ‘세계시민’의 기풍

차이를 뛰어넘는 ‘보편적 시선’

이렇듯 그는 봉건제도하의 신분제도를 통쾌하게 웃어 넘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정부주의 같은 급진주의에 찬성하지 않고 자신이 그 일원(공인)인 귀족사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기 드물게 자유주의적이고 관용적이면서 확고한 신념을 지닌 보수주의자임에 조금도 모순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몽테뉴 사상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불전에는 “왕지(王地)에 출생(出生)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어서 287쪽)라고 있습니다. 몽테뉴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지만 생각해 보건대 이런 현실 대응이야말로 유혈 참사를 피하면서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에 열린 ‘감성’

더욱더 독특한 점은 보편적 세계를 투시하는 그의 눈빛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 동물이나 식물 등도 꿰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몽테뉴는 ‘레이몽 스펅의 변호’라는 가장 장대한 장(章)의 시작에 즈음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우리 인간의 자만을 크게 깎아서 인간이 다른 동물 위에 존재한다는 저 상상의 지배권을 사퇴하고 싶어진다” “거기에는 생명과 감정을 지닌 동물뿐만 아니라 수목이나 식물에서도 우리를 연결하는 일종의 경의(敬意)와 인류 전반의 의무가 나타나 있다”라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위계질서의 선을 긋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명확하게 이질적이며 오히려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 ‘초목성불(草木成佛)’³ 등 불교 법리와 근거에서 통하며, 이런 사고방식이 시대정신에까지 역주2)훈발되면 환경 파괴 등에서 벗어나는 길도 보일 것입니다.

몽테뉴의 회의(懷疑)를 특징 짓는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³ ‘일체중생 실유불성’ ‘초목성불’

불법(佛法)은 우주 삼라만상 일체가 성불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법리를 설한다. 그 중 <열반경>에 나오는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는 경문은 유정(有情, 의식이나 감정이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성불을 설하고,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에 입각한 ‘초목성불(草木成佛)’은 비정(非情, 의식이나 감정을 갖지 않은 산천초목)의 성불을 설한 법리다.

“내가 고양이와 장난치고 있을 때, 어쩌면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것인지 고양이가 나를 상대로 노는 것인지 누가 알 일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경쾌하고 재치 있고 유머가 풍부한 촌언(寸言)이지만 이런 상대(相對) 감각, 생명 감각은 인간과 애완동물 간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도 함축성이 깊은 시사를 던져 주는 듯합니다.

이상 몽테뉴를 ‘사례 연구’로 들어 인간주의의 알맹이인 ‘세계시민의 에토스’라고 할 만한 점을 논했습니다.

동시에 이 인간주의는 유독 실천 규범이라는 측면을 겸비한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내가 감탄하는 것은 그 점에서도 4백 년 이전의 사람인 이 문인이 ‘사례 연구’로 알맞은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주의’ 실천 규범

1_ 점진주의적 접근

2_ ‘대화’를 무기로

3_ ‘인격’을 기축으로

나는 13년 전 1월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불법(佛法)을 기조로 한 인간주의 행동의 기본 자세, 실천 규범으로 ① 점진주의적 접근 ② ‘대화’를 무기로 ③ ‘인격’을 기축으로,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사항들을 음미해 보면 몽테뉴의 발자취가 놀랄 만큼 그 세 가지 규범에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강조해야 할 점은 점진주의적 접근입니다.

누구나 《수상록》을 읽으면 습관이 지닌 힘과 역할을 각별히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게 남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습관이 하지 않는 일이나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핀다로스가 습관을 세계의 여왕, 세계의 여제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습관은 우리 생활에 하고 싶은 대로 형체를 만들어 준다. 습관은 전능한 힘을 갖는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원하는 대로 고쳐 놓을 수 있는 키르케의 술(그리스신화에 나오며 마신 자의 모습을 돼지로 바꿔버리는 마법의 술)이다”라는 식으로 다소 지나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철저하리만치 ‘소상황’에서 접근하는 몽테뉴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황’은 천차만별이며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으며, 그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백지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출생해서 젖을 먹는 것과 함께 이 습관을 들이마시며” “우리의 출생에는 처음부터 습관을 따라가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유로운 개인’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을 제로나 백지 상태로 용이하게 되돌릴 수는 없고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해 인간을 교정하고 개조할 수는 있어도 그 습성이 된 주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은 전부 파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급진주의의 함정

하물며 그것들이 쌓여 폭주하는 국가와 같은 ‘대상황’에서는 경험적인 측면에 입각한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처치는 가능해도 결코 ‘인간의 상상으로 완성한 정치형태’에 맞춰 파괴하거나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이 거대한 전체를 다시 만들고, 이 거대한 건물의 토대를 바꾸겠다는 것은 그림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그림 자체를 지워 버리는 사람들, 개개의 결점을 고치려다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며, 병자를 고치려다가 죽여 버리는 사람들(개혁보다는 파괴를 바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몽테뉴가 종교개혁을 둘러싼 지옥과 같은 항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상록》에 그로부터 2백 년 후의 ‘인권선언’ 이념을 앞서 다루었음에도, 현실 개혁에 대해서는 회의주의자다운 불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내가 ‘자유주의적이고 관용적이면서 확고한 신념을 지닌 보수주의자’라고 언급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개혁이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이를 싫어한다”라는 몽테뉴의 경고가 급소를 찌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부류의 기우였는지, 그 이후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총체적인 평가는 역사가에게 맡기는 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근대혁명을 급진적으로 추진한 자들이 인간과 사회의 ‘가소성(개조 가능성)’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낙관시하고 그 오만함으로 일을 급진적으로 서두른 나머지 테러, 고문, 살육 등의 폭력을 정당화해 선혈이 낭자한 상흔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첩첩이 쌓인 시체는, 적어도 ‘가소성’이라는 점에서는 몽테뉴의 회의적인 통찰이 어지간히 옳았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면 몽테뉴가 공무(公務)를 수행한 경험에 비취 ‘정치에 관한 덕(德)’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자 합니다. 이는 점진주의적 접근의 정묘한 데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갖 주름과 각도와 굴절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섞여 기교를 부린 덕(德)이지 똑바르고 순수하며 변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덕이 아니다.”

“군중 속을 가는 자는 옆으로 비켜서거나 팔을 자기 몸에 바짝 붙이거나 물러서거나 나아가거나 해야 한다. 아니, 상대에 따라서는 샛길로도 가야 한다. 자신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도 타인의 생각을 따르고 시기를 따르며, 사람들을 따르고 내용에 따라 살아야 한다.”

언뜻 완곡하고 빙 돌려서 말한 것 같지만, 본디 정치는 기술입니다. 밀고 당기며, 손익을 조정하고, 이견(異見)은 서로 양보해 해결하며, 타협과 절충은 일상적인 것으로 하고, 너무 큰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속독할수록 “정당한 방식의 행보는 침착하고 중후하며 억제된 방식의 행보이지, 방자하고 궤도에서 벗어난 방식의 행보가 아니다”라고 자부하는 ‘공인(公人)’ 몽테뉴의 노고와 인내심이 느껴지는 구절이며, 깊이 음미할 만한 구절입니다. 바로 지금 일본이 직면한 산적한 제반 과제를 논할 적에도 크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정신을 단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한 본연의 점진주의는, 둘째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무기인 ‘대화’에 귀결하리라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이 명백합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다음 말에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정신을 단련하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내 생각으로는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한다는 것은 인생의 그 어느 행위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라고 본다.”

‘대화의 기술에 대하여’라는 장에서 대화 할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아주 미세한 점까지 공들여서 기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몽테뉴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입은 바지가 다를 뿐”이라고 단언하고 “좋은 논리학자이기보다는 좋은 마부이고 싶다”라며, 오히려 하류층 민중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대화의 ‘진실’과 인간의 ‘품위’를 찾아낸 진정한 인간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나는 여러 층의 구조로 이뤄진 정신을 긴장할 수도 이완할 수도 있으며, 운명에 이끌려 어디로 가든 기분 좋게 있을 수 있고, 이웃사람과 함께 건물이나 수렵 또는 소송에 대해 환담할 수 있으며, 목수나 정원사와도 유쾌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정신을 찬탄한다. 자신과 함께하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과도 친숙해져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유유하고 활달하며 자유자재인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관철한 인물이라야 비로소 ‘소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최고의 스승’으로 더없이 존경하는 것도, “소크라테스는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정신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감탄처럼 이 ‘인류 최초의 교사’가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전문 철학 용어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민중의 바다’ ‘말의 바다’ 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치면서 영지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몽테뉴가 대화를 할 때도 “원인과 결과를 손안에 쥐고 자기 손으로 자기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자”를 배척하고, 인간의 오만함을 배제하며 자신의 사려분별을 초월한 힘, 운명의 힘이라는 것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행동할 생각을 가질 때는 먼저 그 일의 윤곽을 그려보고, 그 첫 상황을 가볍게 고찰해 본다.

그 일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 맡겨 두는 것이 예사였다.”

종교로 말하자면 ‘기원(祈願)’에 해당합니다. 이 겸허한 자세를 망실하면, 말에 대한 과신은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불신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런 데서 대화도 필요 없는 일방적 폭력을 행사하기 일보 직전에 처할 뿐입니다. 힘에 의한 혁명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일상적인 ‘소상황’에서도 때때로 체험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몽테뉴가 말하는 “자부하는 자”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욕망이 향하는 대로 기술을 사용해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생식세포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 등은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며 추악한 파국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파고들라

셋째로 ‘인격’을 기축으로 삼는 점에서도, 몽테뉴는 귀중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몽테뉴의 《수상록》에는 동양적인 무상관(無常觀)이라고 해야 할 세계인식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인 무상관, 특히 일본에서 흔히 해석하기 쉬운 무상관(무상감)에 농후하게 배어 나오는 ‘하늘’이나 ‘대자연’ 등 자신을 초월한 위대한 존재에 몰입하고 합치하는 곳에서 구원을 찾는 태도와 닮은 것 같으면서 다른, 일상성의 마디마디에 맥동하는 일종의 생활감각인 것입니다.

3권 1백7장으로 구성된 《수상록》 대부분은 그러한 서민의 생활감각에 맞춘 처세를 훈계하는 듯한 제목이 붙어 있고 그 점에 평범한 생활인임을 무상의 금지로 여긴 모럴리스트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독자여, 여기서는 나 자신이 바로 내 책의 소재다”라는 각듯하고 냉정한 말투로 시작하는 이 대저(大著)에는 “사람은 저마다 인간 조건의 온전한 형태를 지닌다” “나는 모든 점에서 자신의 주인이고자 한다” “나는 내가 취급하는 재료(몽테뉴 자신)의 왕이다” “나는 내 마음속까지 연구하고 있으며, 내 자신과 관

계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등으로 자기를 포함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달관하면서 서술하는 형식으로 시작해 집요하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응시하며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걸작은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지배한다, 부를 축적한다, 건물을 짓는다는 따위의 모든 일들은 고작 부수적이며 부차적인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격’을 기축으로 끊임없이 회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응시와 회구를 끝까지 파고들었을 때 열리는 경위(境位)는 무엇인지, 혹은 계속 응시하고 회구한 집념을 끊임없이 떠받친 것은 무엇인가. 《수상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충실하게 누릴 줄 아는 것은 절대적인 완벽이며, 신성함과 같은 일이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누릴 줄 모르기에 타인의 환경과 처지를 추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내면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죽마(竹馬)를 타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죽마를 타도 우리는 자신의 다리로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옥좌에 올라도 역시 우리 영덩이는 자리에 앉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생명을 연마하는 기반은 민중 괴롭히는 악과 싸우는 속에

유명한 “크세즈(나는 무엇을 아는가)”를 모토로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어 ‘너 자신’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물은 진정한 회의주의자, 상대주의자가 도달한 곳이 일종의 절대성의 경위(境位)입니다. 이것이 철저의 의심함으로써 독단과 광신을 뿌리째 뽑아 기만성을 제거해 온 사람의 ‘기반’이며 신념의 ‘기축’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종교’의 복권을

‘기반’과 ‘기축’이 견고하기 때문에 종교전쟁, 식민지 수탈, 신분제도 등으로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악에는 가차없이 지탄의 돌맹이를 계속해서 던질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절대성의 경위가 상대적인 것을 서로 대조하며, 회의(懷疑)에 회의를 거듭한 곳에서 떠오르는 내발적인 경위였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절대화해 버리는 (많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빠진) 함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문학자 나카노 시게하루가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魯迅)을 비교하며 ‘인간적으로 대단히 깊은 감

동'을 비슷하게 받았으나 루쉰의 경우는 "그것이 인간적인 감동이라는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자진해서 악에 맞서 싸우려 든다. 악을 증오하게 된다. 전투에서 승리는 못해도 정치적으로는 상대에게 낙인을 찍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낙인을 꼭 찍고야 말겠다는 곳에 도달한다"라고 한 말이 떠오릅니다.

기질은 상이하지만, 루쉰도 몽테뉴와 마찬가지로 탁월한 모럴리스트였습니다. 나카노 시게하루가 나쓰메 소세키에게 느꼈던 한계 비슷한 점은 아마도 일본적인 무상관(무상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윙에다우 씨가 일본적인 '화(和)'에 한계를 느끼고 창가학회의 평화운동과 인간주의 운동에 세계 평화의 '화'를 향한 가능성을 찾아내신 것도 끈기 있는 대화, 악과 싸우는 기개, 그것을 지탱하는 인격과 같은 그런 모럴리스트적인 요인을 느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 '인격' 형성을 위해 종교는 존재합니다. 몽테뉴가 강하게 역설한 것도 그런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본디 불교는 "스스로를 주(洲)로 하며 스스로를 의처(依處)로 삼되 다른 사람을 의처로 삼지 말아야 한다. 법을 주로 하고 법을 의처로 삼되 다른 것을 의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를 바탕으로 한 인격의 절대적인 완성(성불)을 모든 것의 기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중의 인격을 이루는 '확신'과 '핵심'이 되고 나아가 세계시민을 형성하는 길로 통하기를 나는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인간 존엄'을 유엔 강화의 기둥으로

인권이사회와 평화구축위원회를 창설

시민 사회와 총회 잇는 '대화' 촉진을

이어서 자각한 '민중'이 주역이 돼 평화와 공생의 지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방도를 논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축이 돼야 할 존재는 뭐라 해도 유엔입니다.

테러나 분쟁, 빈곤과 환경 파괴, 기아와 역병 등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확대되는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엔의 개혁,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설 6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여러 형태에서 개혁을 논의하는 소리가 높아져, 3월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더 많은 자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빈곤에서 자유(개발)' '공포에서 자유(안전 보장)' '존엄을 갖고 사는 자유(인권)'라는 세 가지 각도에서 유엔의 사명과 개혁의 방

향성을 포괄적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개발 없이 인류의 안전 보장은 없다. 안전 보장이 없다면 개발도 불가능하다. 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개발도 안전 보장도 있을 수 없다.”

실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까지 유엔 개혁을 전망하면서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간 세 가지 테마, 즉 ‘인간 개발’ ‘인간의 안전 보장’ ‘인권’을 기둥으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근본 사명은 ‘우리 인민은’으로 시작하는 헌장이 상징하듯이, 세계의 모든 민중을 위해 공헌하고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등을 기본으로 토의를 거듭한 결과,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의 세계정상회의에서 유엔 개혁을 위한 ‘결과문서’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의견 조정이 어려워, 핵군축과 비확산 분야처럼, 언급 부분이 모두 삭제되거나 대략적인 합의만으로 끝난 항목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또 큰 초점이 됐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개혁도 ‘조기 개혁을 지지’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이사국 확대 등의 구체적인 안은 결과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나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더 폭넓게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지향하는 안보리 개혁의 방향성 자체는 지지하며, 유엔 기반 강화를 위해 어떤 형태로 개혁을 추진하면 좋을지, 앞으로도 의견 집약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반 강화에 관련해, 유엔 예산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한 과제며 또 가맹국의 분담금 외에도 내가 예전에 제안한 ‘유엔민중펀드’와 같은 자금 확보 수단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정상회의’에서의 개혁 성과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문서에서 인권위원회를 대신하는 ‘인권이사회’ 설치와 ‘평화 구축위원회’ 창설 그리고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긴급회전기금’ 개선 등의 개혁안에 합의를 본 것은 일정한 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간 조직’이라는 제약상, 의욕적인 개혁이나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해도 각국의 국익이라는 두꺼운 벽에 가로막히고 마는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판만 할 뿐이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을 실행 단계로 옮겨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제거하는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확립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본 개혁안 중에서 특히 ‘인권이사회’와 ‘평화구축위원회’에 대해 한마디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권이사회’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세계 공통의 과제를 테마별로 채택, 개선을 향한 지속적인 토의와 연구를 함과 아울러 결의 채택을 통한 개선책 제안 그리고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인권 침해 사실 공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권 문제에서는 특정 정부를 규탄하는 것으로 일관해 문제의 경직화를 초래하거나 각국의 외교 관계를 반영하는 형태로 인권 문제의 취급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경향도 있었기에 그 신뢰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할 것입니다.

‘인권이사회’는 앞으로 검토를 거쳐 연내에 설치될 전망인데, 나는 ‘인권이사회’의 역할과 체제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사회의 통상 회기 의제 중 하나로 ‘인권 교육과 홍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책 검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위법성을 토의해 희생자 구제 조치를 모색하는 일은 당연히 인권위원회에서 계속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침해를 낳는 사회 토양을 인내를 갖고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마침 지난해부터 유엔에서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인권이사회’가 의제 항목의 하나로 인권 교육에 따른 의식 개발을 채택해 이 문제에 계속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세계 프로그램 시행을 팔로업(이어 계속함)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시민 사회 대표에게 ‘인권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의 인권 운동은 많은 NGO 등의 적극적인 관여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탱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로 인정하고 또 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 NGO 참여 방법이 제도화돼 있었습니다.

전체 모임에서의 발언이나 여러 협의회에서 정부 또는 유엔 관계자와 NGO 간의 협의가 활발하게 열려 온 이 제도는 새로운 ‘인권이사회’에서도 계속돼야 하며 더욱 효과적인 형태로 유지되기를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인권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기관을 ‘인권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해 온 인권소위원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을 설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자문 기관은 ‘인권이사회’의 토의를 돕는 싱크탱크(조사 연구 기구) 기능과 함께 시민 사회의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문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인권소위원회 산하에서 발전한 소위원회 특별보고자나 원주민, 소수인 등의 특정 인권 문제에 관한 작업그룹이라는 제도를 앞으로도 이어 가야 하겠습니다.

분쟁이 재연되는 악순환 근절

두 번째는 ‘평화구축위원회’ 설치입니다.

이는 분쟁 후의 평화 구축에서 부흥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조언이나 제안을 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말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를 거쳐 정식 발족을 결정했습니다.

2년 전 제언에서 내가 제안한 ‘평화부흥이사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겨우 평화를 실현한 나라나 지역의 절반가량이 5년 이내에 다시 분쟁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선 이 악순환을 근절시키는 것에 ‘평화구축위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발족에 즈음해 유엔은 ‘평화구축위원회’ 역할을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특히 다음 세 항목의 구체화에 전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 ① 활동 내용을 정하는 데, 대립하는 정부 또는 그룹의 중심자뿐 아니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불안과 위협을 제거하는 대응을 우선으로 할 것.
- ② 평화 구축 프로세스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NGO와 협의하는 장(場)을 가져 연대를 깊게 할 것.
- ③ 분쟁을 극복해 평화를 구축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살려, 분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 것.

평화 구축이나 부흥 재건이라면 자칫 국민 선거 시행이나 새로운 정부 수립 또는 헌법 제정 등 ‘국가 재건’이라는 외면적인 요소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민중’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한, 비극의 유전(流轉)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20세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재건’ ‘행복 부흥’을 향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 협력의 연대를 넓히는 것이 ‘평화구축위원회’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의회’를 활성화하는 길을

이 민중의 관점에 선 유엔 개혁이라는 면에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총회의 강화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분야에서는 안보리가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모든 가맹국이 참가해 글로벌한 위협에 대해 서로 대책을 논의하는 ‘보편적인 대화의 포럼’은 유엔 총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인류의 의회’를 활성화하는 일이 유엔 전체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도 총회 개혁에 관해 “그때그때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시민 사회와 전면적 또는 조직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그 구체적 방법을 합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성이 유엔 총회 개혁의 주축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특히 ‘시민 사회와 협동 관계’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총회 의장 또는 각 위원회 대표와 NGO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총회 주최로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시민 사회와 하는 공청회가 이틀 동안 열려, 세계 각지에서 모인 NGO대표와 전문가가 폭넓게 의견을 표명하는 장이 됐습니다.

앞서 말한 결과문서에도 ‘공청회와 같은 시민 사회 대표들과 가맹국의 대화를 환영한다’는 주장이 있는 등, 매우 획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NGO 측도 ‘새천년+5 NGO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 사회의 소리를 한데 모아 정리하거나 유엔 측과 의사를 소통하는 창구 기능을 하는 등 의욕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중과 유엔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을 정착시키는 일은, 가맹국과 민중(시민 사회)이라는 두 다리로 지탱하는 유엔을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SGI도 발족 이래, 불법의 ‘인간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유엔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SGI 대표가 종교·윤리 관련 유엔 등록 NGO로 구성된 ‘유엔종교NGO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는 등, 더욱 다각적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또 내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유엔 개혁, 강화를 위한 국제 회의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월에 개최합니다.

그 회의에서는 ‘인간의 안전 보장과 글로벌 거버넌스(지구 사회 운영)’나 ‘문명간의 대화’ 등 지금까지의 연구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해,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유엔’ 구축을 위한 방도를 토의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 아시아서 확대되는 위기

이어서 지금 세계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지구 환경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월, 나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맞춰 일본을 방문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왕가리 마타이 박사와 만났습니다.

이제는 세계 평화를 전망하는 데도 지구 환경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박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환경 분야에서 활동한 수 백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평화를 위해 환경이 중요하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타이 박사는 모국인 케냐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사막화와 싸우기 위해 ‘그린벨트 운동’을 전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3천 만 그루 식수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막화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건조지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이것은 유엔 등이 추진하는 ‘새천년 생태계 평가’⁴ 결과 분명해진 것으로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돼

⁴ 새천년 생태계 평가

유엔 주도로 2001년 6월부터 4년간, 95개국 1천 3백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해 시행한 프로젝트.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 인류가 과거 50년 간, 일찍이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급속히 생태계를 바꿔 온 것을 지적. 이 상태가 이어지면 생태계 작용이 다시 급속히 저하한다고 경고한다.

사막화가 심각해질 경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므로 유엔에서는 올해를 '사막과 사막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유엔이 정한대로 올해 사막화를 방지하는 국제 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나는 사막화를 확대하는 요인인 지구온난화 분야에도 발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에 솔선

교토의정서 후 온난화 대책

지구온난화는 '산성비 대책'과 '오존층 보호'에 이어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 온 분야입니다.

가까스로 지난해 '교토의정서'를 발효해 선진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 삭감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절반 이하까지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초점은 '교토의정서'에서 이탈한 미국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중국이나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참가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 문제는 지난해 7월에 열린 G8서밋에서도 의제로 다루었습니다.

또 12월에 캐나다에서 개최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1회 당사국 총회와 '교토의정서' 제1회 당사국 총회의 결과, 동(同) 조약 아래 '작업그룹'을 설치해 2013년 이후의 사업 계획에 대한 대화를 앞으로 2년 동안 토의할 것 등을 결정했습니다.

토의 내용에 구속력은 없다는 유보적인 견해지만 미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참가하는, 모든 나라에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때는 붕괴마저 우려됐던 협약의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최국으로서 '교토의정서' 성립에 주력한 일본이 환경 문제에 열성적인 나라들과 제휴하면서 온난화 방지 제2단계인 틀짜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토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삼림 등을 가꾸어 이산화탄소 흡수 촉진을 의

무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삭감 목표 달성을 원활히 꾀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⁵이라고 부르는 구조와 삼림의 흡수량 증대를 배출량 삭감에 산입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사업 진행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삼림 보호와 식수 활동,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숭선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점, 당사국 총회에서 개발도상국 측에 제시한 플랜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삭감 사업을 하는, ‘클린개발 메커니즘’ 대상에 삼림 보호 추진 사업을 추가하는 안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4년 전 제언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조약’ 체결과 함께 ‘지구녹화기금’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 중 10%에서 20%는 삼림 감소가 원인인 만큼, 삼림 보호를 위한 세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는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요망을 근거로 한 제도를 전향적으로 정비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 쪽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난화 방지와 더불어 내가 일본의 강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환경교육 분야입니다.

지난해부터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SGI가 다른 NGO와 함께 호소해 2002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한 ‘환경 개발 서밋’에서 NGO의 제안을 받은 일본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그 후 유엔총회 채택을 거쳐 실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제 시행 계획’을 정리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 가치관, 실천을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에 편성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한다는 교육 10개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나라마다 시행 계획 책정이나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육 10개년을 제안한 나라로서 ‘환경교육 모델국’을 목표로, 사막화 등 환경 악화가 진행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나라들에게 이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전부터 21세기에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은 ‘환경 입국’ ‘인도 입국(人道立國)’에 있다고 주장해

⁵ 교토메커니즘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 달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총칭. 선진국이 온난화 대책 사업을 공동으로 실행하는 ‘공동 시행’ 외에 선진국이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온난화 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클린개발 메커니즘’, 선진국 간에 배출 할당량 일부를 거래하는 ‘배출량 거래’의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왔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공헌을 다하는 것은, 지구 환경 악화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SGI도 교육 10개년을 주창한 단체로서 세계 각지에서 환경전 ‘변혁의 종자(種子) – 지구현장과 인간의 가능성’ 개최에 주력하는 한편, SGI가 제작에 협력한 환경 영화인 ‘조용한 혁명’ 상영 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상 간의 대화가 아시아에 정착

다음으로 ‘부전(不戰)의 세계’를 전망하기 위해 지금 역시 냉전 시대의 대립과 긴장 구조가 짙게 남아 있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춰 평화 구축 방도를 모색했으면 합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맹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한 1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동아시아 서밋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최대 성과는 뭐라 해도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위한 정상 간 대화의 정착화를 도모했다는 것이겠지요.

지역 간 협력으로 ‘신뢰의 유대’를 키우자

동아시아에 ‘부전(不戰)의 공동체’를!

한·중·일 우호는 동아시아 안정의 견인력(牽引力)

그 직전에 이루어진 ASEAN+3(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칼라룸푸르선언’을 채택해 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ASEAN+3 정상회의를 해마다 ASEAN 정상회의에 이어 계속 개최한다.

②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장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제2의 공동성명’을 2007년에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한다 등의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또 동아시아 서밋에서도 참가국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이행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서밋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시아의 평화와 우호 촉진을 염원하며 행동해 온 한 사람으로 나는 이번 합의를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계국들이 국익 대립 등을 극복하면서 '부전(不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 토대는 이미 서밋 개최까지의 프로세스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서밋의 참가 조건으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가맹이 요구됐는데 그 결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잇따라 서명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 포기' 등의 원칙에 동의하는 나라가 확대됐습니다.

모두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지역적으로 거듭 견지하는 속에 각국이 평화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설령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동아시아에 '부전의 제도화'를 향한 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 대화의 정기 개최'와 '지역 간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간 대화에 대해서는 이미 ASEAN+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서밋의 정기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제2의 공동 성명' 내용을 토의하는 자리를 모체로 하면서, 예를 들면 '동아시아평의회'와 같은 기관 설치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ASEAN 안에서 실무적인 활동을 담당해 온 상임위원회와 중앙사무국을 핵으로 해 이것을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평의회'를 통해 지금 현안이 되는 ①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등 보건 위생 분야의 제휴, ② 수마트라 섬 지진해일(쓰나미)을 교훈으로 삼은 방재·복구 협력 추진, ③ 환경 파괴나 오염 확대 방지 등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위협'에 지역 전체가 맞서 대처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 작업'이 반드시 '신뢰 조성'의 바탕이 되어 '공동체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역 간 협력 활동과 정상 간 대화로 정치적 리더십이 잇따라 움직인다면 '동아시아 공동체'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생의 에토스가 정신적 기반으로

유럽에서는 현재, EU(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각국의 비준 등으로 더욱 지역 통합의 심화를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U의 전신인 EEC(유럽경제공동체)를 발족한 지 내년으로 50년을 맞는데, 반세기에 걸친 ‘지역 간 대화’와 ‘지역 간 협력’의 축적을 거쳐 바야흐로 유럽에 ‘부전의 공동체’의 견고한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냉전 이래의 대립과 긴장이라는 ‘불행한 유산’을 청산하고 각국이 손을 맞잡고 공동체 형성을 향한 한걸음을 내디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0년, 1백년이라는 장기적 안목으로 시대를 크게 주시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 그리고 드디어, 위고가 꿈꾸던 ‘유럽 합중국’과 같은 각각의 나라가 특질과 개성을 잃지 않고 더 높은 결합 속에서 빛을 더하는 ‘아시아 합중국’까지도 전망하는 기개로 공존공영을 향한 키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처럼 유럽에서 공동체 형성이 진행된 배경에는 기독교 문명이라는 공통된 정신 기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는 거기에 상응할만한 가치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카쿠라 덴신의 ‘아시아는 하나’라는 주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만, 나는 예전에(1992년 10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민족이 각각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 간단하게 한데 묶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공생의 에토스(기풍)’라는 것이 흐르고 있지 않겠느냐고.

다시 말하면, 비교적 온화한 풍토로써 대립보다는 조화, 분열보다는 결합, ‘나’보다는 ‘우리’를 기조로 인간 상호간의 공존하려는 심적 경향입니다. 거기에는 서구 문명의 ‘개인주의’ 중시와는 달리, 타인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본래의 자신이 있다는 인간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얽힌 사정도 있어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결합과 연합을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 소통, 가치관 공유, 이념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는 항구화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시아의 평화를 전망해 인간 상호간의 교류를 심화하는 민간 차원의 교류에 전력을 쏟아 왔습니다.

저우 총리와 가진 잇을 수 없는 만남

그러나 공동체 형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중·일 3국 관계, 그중에서도 중일 관계는 근래 정치적 문제로 크게 냉각돼 있어 그 타개가 급선무입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는데, 중일 관계가 현재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을 때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중일 국교 정상화 제언을 할 당시(1968년)는 ‘문화대혁명’의 충격도 있어 일본인이

중국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였기에 갖가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중일이 우호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아시아 평화도 세계 평화도 없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제언에서 호소한 중일 정상회담이 1972년에 실현되고 공동 성명으로 국교 정상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중일우호협회의 초청을 받고 처음 중국을 방문한 때는 1974년 5월이었습니다. 반년 후인 12월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요양 중이었으나 의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담해 주셨습니다.

저우 총리는 다방면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에 있었던 것은 ‘21세기 아시아와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한 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세 대대에 걸쳐 우호를 구축해야 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25년은 세계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나라가 평등한 처지에서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우 총리는 그 1년여 후에 서거하셨으나, 나는 이때 하신 저우 총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날까지 만대에 걸친 중일 양국의 우호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교육’과 ‘문화’ 교류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배’에 비유한다면 그 배를 나르는 ‘바다’는 민중과 민중의 연대며 때로는 배가 난파한다 해도 바다가 있는 한 왕래를 계속한다 – 나의 행동은 이 신념으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한일 우정의 해’였던 작년, 나는 국립제주대학교의 조문부 前 총장과 대담집 제2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인 화중사범대학교 장카이위완 교수와 대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하신 장 교수는, 약 1백년 전에 전개된 쑨원(孫文)의 혁명 운동을 일본인이 협력하고 지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존중하고 동시에 역사를 극복해야 합니다. 2천 년이 넘는 중일 관계 역사는 우호 교류가 주류였습니다. 일의대수(一衣帶水: 한 줄기 좁은 강물)의 양대국은 화합을 기본으로 하면 서로 번영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함께 상처를 입습니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일 양국의 행복이자 아시아의 행복이며 세계의 행복입니다”라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교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는데 그 방침을 대체

적 윤곽으로 견지하며 또 하나의 커다란 외교 기축을 아시아에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간에 앞으로 2천 명 이상의 고교생을 상호 초대하는 교육 추진에 합의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전부터 과거 역사의 교훈을 서로 정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청년의 교육 교류’를 강력히 추진하자고 호소해 온 만큼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일본이 중국 그리고 한국과 손을 잡고 직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도우며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견인력이 된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세세 대대의 우호’를 구축하는 데 21세기 일본의 진로가 있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을

지금 한중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과제 중 하나가 북한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2003년 8월 ‘6자 회담(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체제를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각국의 수석 대표들이 협의를 단속적(斷續的)으로 해 왔습니다.

북한 핵개발 문제 해결의 장애 제거를 위해

6개국 정상과 유엔·IAEA대표가 한자리 모여 ‘대화의 장’ 마련해야

‘소프트파워’에 의한 해결만이 동아시아 안정으로

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휴회와 함께 거행된 제4회 협의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을 포기하며 NPT(핵확산방지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 조치에 조기 복귀를 약속하는 한편,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으며 북한을 핵무기나 통상 무기로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성명으로 드디어 6개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보를 내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핵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중요한 절차나 일정 등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그 검증 체제도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협의 자체도 지난해 11월 이래 이렇다 할 진전도 없이 휴회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핵개발 문제가 국제 사회에 큰 초점이 된 와중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협의를 제2단계로 추진하기 위해, 6개국 정상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대표를 초청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상 간에 합의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안전별로 '작업그룹'을 설치해, 핵포기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검증 체제 등에 관해 개별적으로 기한을 정해 토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종착점도 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협의에 의한 문제 해결의 계획으로, 군사력 등 '하드파워'가 아니라 대화 등 신뢰 양성에 입각한 '소프트파워'에 의한 해결이 궤도를 타게 되면 동아시아의 안정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대량 파괴 무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길도 크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서 앞의 공동 성명 속에 "6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한다"라는 구절이 포함된 의의는 큼니다.

나도 언제나 '6자 회담'을 정착화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포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의 현안으로서, 납치 피해자 문제와 국교 정상화 교섭도 지역의 긴장 완화와 더불어 진전시켜 나아갈 것을 강력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각성한 민중 연대로 '평화의 문화'를 시대 정신으로

핵군축 진전 위해 국제여론을 환기

끝으로 대립과 충돌이라는 '전쟁의 문화'에서 협조와 공존을 근본으로 한 '평화의 문화'로 시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토양을 바꿔가는 방법으로 '군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서 60년을 맞은 지난해는 유감스럽게도 핵군축을 위해 큰 진전을 도모할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5월 NPT재검토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폐회한 것과, 9월 유엔 총회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 핵무기에 관한 언급이 보류된 사실입니다.

재검토회의에서 대처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핵군축’을 상정한 의견과 ‘비확산’을 상정한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함으로써 실질적 심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합의 문서는 고사하고 의장 성명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유감스럽게 그 후에도 의견대립은 해소되지 않고,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도 핵군축과 비확산에 관한 기술을 전부 삭제하는 형식을 채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실망은 엘바라데이 IAEA 사무국장이 지적한 핵무기를 둘러싼 세 가지 동향, 즉 ‘핵 암 거래 발각’ ‘핵무기에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 생산 기술을 획득하려는 국가의 증가’ ‘테러리스트의 대량 파괴 무기 획득의 명확한 욕망’ 등으로 국제 사회에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이런 상황이 상징하듯, 지금 세계에서 군축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의사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면에서는 국제 여론의 고조가 결여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NPT체제를 조속히 재확립하는 등 국제적 법제도의 정비가 급선무이나, 이와 동시에 군축을 요구하는 민중의 소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교육과 군축교육으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 변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년에 유엔에서도 이런 인식이 고조돼, 2002년에는 전문가 그룹이 정리한 보고서인 ‘군축·비확산 교육에 관한 유엔의 연구’를 총회에서 채택했습니다.

인류 이익을 위한 세계 시민을 배출

나는 본격적인 군축교육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과 이에 대처하는 재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군축에 대한 국제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와 평화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군축교육 추진에서 군축을 최종 목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평화’에 대한 이미지 전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평화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 존엄을 위협받지 않고 각자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행복한 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사회를 바로 진정한 평화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에 반환점을 맞은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10

년⁶중에 그 중핵적 요소로 군축교육을 정착하고 시민 사회에 활동의 폭을 넓히는 움직임을 전개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 주권’에서 ‘인간 주권’으로 좌표축을 전환하는 것이며, ‘인류 이익’과 ‘지구 이익’에 입각한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 그 연대를 확대하는 서민 차원의 교육 운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넓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화의 문화’에 근본이 되는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최대의 관심을 뒤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마음의 변혁’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의 변혁을 촉구하고 그것이 사회로 확대되는 가운데 평화의 파도를 일으키고 국제 여론을 강력히 리드합니다. 이런 ‘민중의 힘’이 군축 노력을 가속화하고 ‘평화의 문화’를 크게 꽃피울 것은 틀림없습니다.

SGI도 ‘세계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문화 건설’ 전시회 등으로 의식 계발을 위해 참여했으며 또 지난해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평화의 문화 정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다(戸田) 제2대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 발표 50주년을 기념해, 민간 차원의 군축교육 추진에 힘을 경주하며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의 문화’로 시대 전환의 파도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로트블라트 박사의 강한 신념

안타깝게도 지난해 돌아가신 퍼그워시회의 명예 회장 로트블라트 박사가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박사와 내가 ‘전쟁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열기 위한 대담을 거듭하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면 파문이 넓혀집니다. 그 파문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파문을 일으킬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것이 NGO와 같은 형태로 연대하면 틀림 없이 외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연대해서 세계를 변혁하려면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나 긴 안목으로 보면 최후에는 민중이 승리합니다.”

⁶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10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제창하고 유엔이 결정한 ‘세계 평화의 문화 해’(2000년)에 이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화의 문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세계에 고취하고 어린이의 평화 교육과 행동을 촉구하는 것.

우리 SGI가 불법(佛法)의 인간주의(人間主義)를 근본으로 세계 1백90개국에 넓혀 온 평화, 문화, 교육 운동에 로트블라트 박사가 이와 같이 무한한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각성한 민중의 연대'가 모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세계의 모든 분들과 손을 맞잡고, 우선은 2010년까지 5년간을 '평화와 공생의 지구 사회' 기반 조성의 중요한 도전의 때라는 생각으로 용기와 희망의 대전진을 하고자 합니다.

역주1) 여연화재수(如蓮華在水)

지용의 보살이 능히 보살도를 향해서 세속의 법에 물들여지지 않는 모습은 마치 연꽃이 흙탕물 속에 있어도 청정무염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뜻. 어서 833쪽, 어서사전 1064쪽 참고.

역주2) 훈발(薰發)

선악, 미오(迷悟)의 제법(諸法)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 훈은 미오의 제법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마음을 미혹 또는 깨달음의 상태로 만든 것이며, 발은 연에 부딪쳐 외면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어서 1252쪽, 어서사전 1699쪽 참고.

참고문헌

1. 인간의 종언(終焉): 빌 맥키벤 저, 야마시타 아쓰코 번역, 가와데쇼보신샤 출판.
2. 세계리스크사회론: 시마무라 겐이치 번역, 헤이본샤 출판.
3. 무너지는 일본인: 야나기다 구니오, 신초샤 출판.
4. 도스토예프스키전집: 고누마 후미히코, 치쿠마 쇼보 출판.
5. 도쿄대강의록: 사카이야 다이치 저, 고단샤 출판.
6. 사교(社交)하는 인간: 야마자키 마사카즈 저, 추오코론신샤 출판.
7. 문명론의 개략: 후쿠자와 유키치 저, 이와나미분코 출판.
8. 세계고전문학전집 제37권, 제38권: 하라 지로 번역, 치쿠마쇼보 출판.
9. 나카노 시게하루 평론집: 하야시 요시미 편저, 헤이본샤라이브러리 출판.
10. 불교백화: 마스터니 후미오 저, 치쿠마분코 출판.